

“업은바 있어도 일체 견해 버려라”

이 같이 일심(一心) 중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모든 이룩되어진 모습은 시설된 것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언제나 불이(不二)의 중도실상 가운데서 인연 따라 수취작주해야 한다. 위의 말은 《법망경》에 나오는 다음 계승의 일부이다. “응당 고요히 관찰할지니, 제법의 실상은 불생불멸이며, 영원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하며 다르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이 일심 중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설혹 그대가 삼승십이분교(三乘十二分教)를 배워 업은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버려라’ 하니까, 속인들은 이 말을 배워서 애써 버리려고 한다. 이것은 스스로의 착각에 속은 모습이다. 실상은 버리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무엇을 버리고 말고 할 것인가? 이런 입장에 나타난 사람이라야 ‘버려라’ 하는 말 자체를 알아듣는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소화하고, 애써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취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취사(取捨)의 양변을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삼승십이분교는 부처님의 일대(一代) 교설이다. 삼승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말한다. 십이분교는 석존의 교설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열두 가지로 나눈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 남은 정상에 병들어 누워있다.”고 한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유마거사가 한 말이다. 《유마경》(문수사리문질품)에 나오는 이야기다. 유마거사는 가진 것에 구속당하거나 구애받지 않았다.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인연 따라서 살피는 것뿐이다. 이 점은 물질 뿐만 아니라, 지견(知見)까지도 해당된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삼계와 범성(凡聖)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라고 한다.

속인들은 ‘부처의 경지를 이루어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여 부처를 이루려고 애쓴다. 자꾸 차별 경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다. 하지만 성품을 자각한 도인들은 범부와 부처를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하고 내려놓고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의연하게 자기 갈 길을 갈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 데에 머리 숙여, 외도의 굴레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6>



범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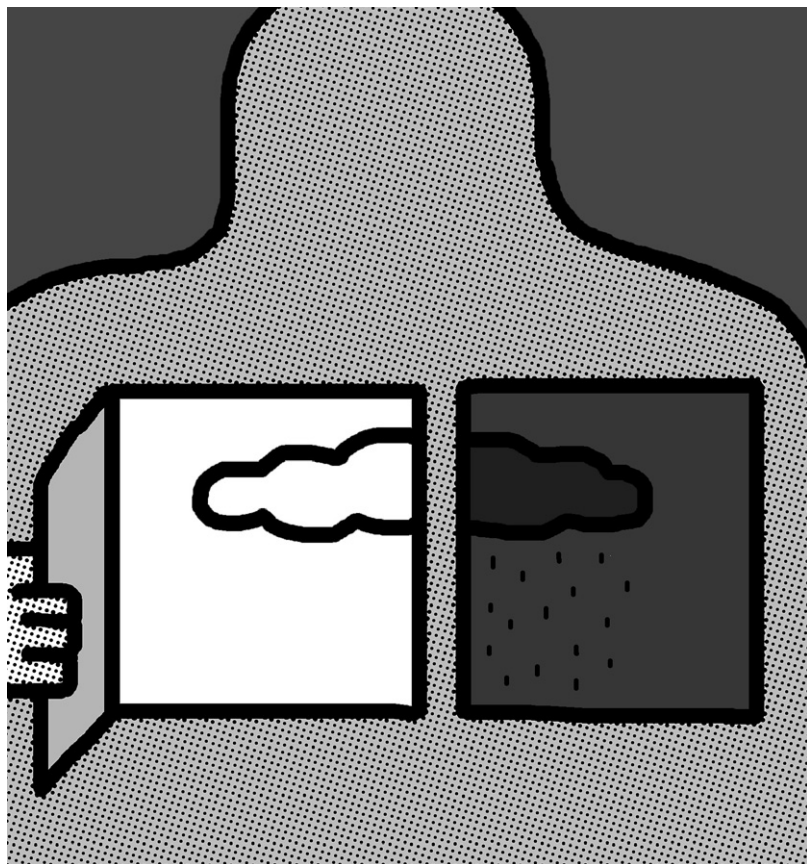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본래 없는데 무엇을 버리나 이런 경지의 사람은

취사의 양면 함께 내려놔

부처를 이루려고 애쓰면

경계 만들어 발등 찍는다

성품 자각한 도인들은

범부·부처 둘로 안 보기에

의연히 자기 길을 갈 뿐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

과거·현재·미래 없는 허공

마음도 그와 같이 하였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일체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

마음을 깨달아야지

변화에 시비할 까닭 없어

외도의 어리석음은 늘 허망한 짓을 한다. 또 수레를 뺏아도 성문승과 연각승의 어리석음 역시 허망한 짓을 한다. 대승도 경우 따라 어리석은 짓을 하므로, 일불승만을 논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분별심에 떨어지면, 허망하게 된다. 허공처럼 의지할 곳 없는 데란 바로 분별 시비가 끊어진 곳이다. 위의 말은 《유마경》의 〈불국품〉에 나오는 찬불개의 한 구절이다.

마음에 이미 차별상이 없으므로, 법 또한 차별상이 없다. 마음이 하였으므로, 법 또한 하였었다.

마음과 법은 둘이 아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했다. 허공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마음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였었다는 것이다.

만법은 모두 마음이 변화되어 나온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일체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마음을 깨달으면 되지, 변화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시비할 까닭이 없다. 개는 돌을 따라가지만,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공(空)하기 때문에 제법(諸法)이 공하며, 천 가지 만 가지가 모두 이와 같다.

성품을 탁 보는 순간에, “아, 제법이 본래 공했구나! 다 허망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야 한다.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순

간에 완벽하게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분별심이 다시 일어나 자꾸 착각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체 중생이 동일하므로, 한 번 성품을 봤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또 봐야 될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허망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은 시방의 허공계가 같은 한마음의 본체다. 마음이란 본래 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 생각이 천차만별로 옳니 그르니 크니 작니 하며 온갖 허망한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자각하고, ‘그렇구나!’ 하는 믿음을 내게 된다. 그 믿음이 방향을 멈추게 해준다.

비유하면 모든 천인(天人)들이 다 보배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좋은 그릇에 최상의 음식을 받아먹으면서도, 생각에 따라서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왜 맛이 이래?’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각자의 복덕에 따라, 그때그때의 입장들이 다른 것이다. 육조해능 스님은 복덕이란 상(相)을 가지고 짓는 모습이고, 상을 여의고 쌓는 것은 공덕이라고 했다. 위의 비유 역시 〈불국품〉의 서문에 나오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그는 어머니의 태내에 있으면서 몸으로부터 빛을 발하였다

<여래장경>

빛의 발신자

우리 스승 중에 불연(不然) 이기영(李箕永) 선생님이 계신다. 그분은 평생 원효를 읽고, 원효를 쓰고, 또한 원효를 말하였다. 원효는 말 그대로 다면불(多面佛)적인 면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지만, 그런 중에서도 ‘여래장’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다. 불연선생님은 바로 그 점을 주목하셨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도 많지만, 불연선생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물론 원효의 저술을 교재로 선택해서 강의하신 적도 있지만, 동시에 인도철학을 강의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도철학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원효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점이다.

그런 증거가 하나 남아있다. 실제 선생님은 인도철학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을 남기신 것은 아니지만, 몇 편의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셨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바(garbha)’에 대한 것이다.

가르바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 태아(胎兒)이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인 <여래장경>의 여래장이라는 말에도 ‘가르바’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여래장은 산스크리트로는 tath?gata-garbha라고 한다. 티타가타는 ‘여래’라는 말이고, 가르바는 ‘장’이라 번역되었다. 태아는 감추어져 있는 것 아닌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장’이라 번역된 것 같다.

불연선생님의 논문은 이 여래장이라는 관념이 인도철학의 우파니샤드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의 태아(hira?ya-garbha)’와 관련한다는 점을 주장하신 글이다.

여래장은 여래의 태아이다. 여래가 될 태아를 수태(受胎)한다. 즉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모든 인간은 바로 빛의 발신자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모두 여래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방광을 하는 발광체임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님은 아니다.

빛의 수신자

상방광명여래(常方光明如來). 언제나 광명을 발하시는 여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부처님이다. <여래장경>에 등장하는 부처님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어있을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는 빛의 발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빛을 배달하

고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상방광명여래’라 불리었다.

상방광명여래가 과거의 부처라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여래장경>에서 그 부처님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렇게 부처님이 될 종자를 우리의 태내에 갖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 바로 상방광명여래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여래장의 존재이다.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세계에 한 돌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수도 없이 많다. 우리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발광체(發光體)로서 여래장이다.



그림 ·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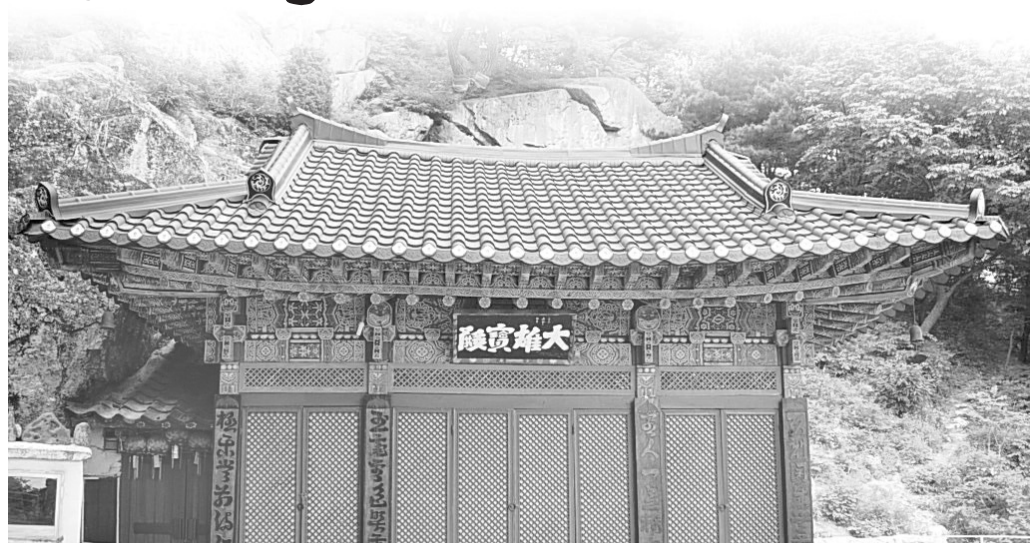
그렇게 우리는 교착(交錯)하는 빛의 광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빛의 발신자이면서, 동시에 빛의 수신자다. 발신하면서 수신하고, 수신하면서 발신한다. 발신은 자력이고 수신은 타력일 터이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말들이 다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그 빛 속에서 존재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빛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발신해줄 빛이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 염려는 없다. 수없는 여래장의 존재들이 다 빛을 발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 빛의 향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래가 태아로서, 지금의 우리에게 잠재(受胎)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상방광명여래가 아닌가. 상방광명여래로서 빛을 발해 주고 있고, 또한 또 다른 상방광명여래의 빛을 받으면서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는 빛과 빛으로서, 서로를 비추어 주면서 함께 존재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교·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합니다